

북 인권 유엔 전문가 대한민국 방문

제네바/서울 (2019년 6월 13일) – 북 인권 유엔 전문가가 6월 17일에서 21일 사이 대한민국에 방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는 대한민국 정부 고위관계자, 탈북민, 시민사회 대표자를 비롯하여 외교계 인사 및 기타 관계자를 만나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별보고관은 여러 차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국가 방문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보고관은 정기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며,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번 방한은 현 특별보고관이 2016년 3월 인권이사회로부터 위임권한을 부여받은 후 여섯번째 방문이다. 앞서 2019년 1월 대한민국에 방문한 바 있다.

특별보고관은 6월 21일 금요일 (현지 시각 기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장 출입은 언론인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특별보고관은 금번 방한에서 파악한 내용과 권고를 담아 2019년 10월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끝.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아르헨티나)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인권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 (Abuelas de Plaza de Mayo) 대표로도 활동했다. 또한 기업형사책임 건도 다뤘다. 과거 볼리비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직을 역임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독립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절차는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며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 국가별 웹페이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추가 정보 및 언론사 문의는 Madoka Saji (02 725 3525, msaji@ohchr.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타 유엔 독립전문가 관련 언론사 문의는 아래 언론 부서(Media Unit) 담당자로 문의해 주십시오.

Mr Jeremy Laurence – Media Unit (+ 41 22 917 9383 / jlaurence@ohchr.org)

태그 및 공유 - 트위터: [@UNHumanRights](#) 페이스북: [unitednationshumanrights](#)